

허규연 KBO 신임 총재, 어수선한 야구계 재도약 이끌지 귀추

허규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는 부산의 야구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교 재학시절 활급사자기 대회 우승을 이끄는 등 뛰어난 실력으로 야구 엘리트 코스인 청소년 대표, 국가대표 등을 잇달아 거쳤다.

고교를 졸업한 뒤 실업야구 강호로 불렸던 삼업은행에 들어갔다. 동기생들과 함께 운동한다는 조건으로 입단했지만 공부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후 1971년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며 피나는 노력 끝에 고려대 체육학과에 입학했다.

고려대에서도 맹활약하며 야구의 꽃인 4번 타자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야구 때문에 공부에 전념할 수 없었다. 이후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치르고 고려대 법대로 과를 옮겼다.

허 총재는 대학 졸업 후 최고의 명감독으로 자라난 김용음이 이끄는 한일은행 야구단에 입단해 주전 멤버로 활약했다.



공덕롯데캐슬프레지던트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그러나 입단 2년 차 야구 인생에 큰 변화를 준 사건이 발생했다.

1976년 열린 한일 올스타전 경기 도중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으로 그라운드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1978년에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야구계를 떠나 고려대 법학대학원에 진학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친 뒤에 1981년에 경기대 교수를 지냈다.

하지만 야구선수에서 강단에 올랐지만 야구에 대한 미련이 남았다. 1982년 프로 야구 출범과 함께 야구 해설위원으로 돌아왔다.

31세 때 MBC에서 해설을 맡아 날카로운 분석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선수와 팬들도 인정하는 국내 최고 해설위원으로 거듭났다.

해설위원으로 이름을 떨치던 1985년 역대 최연소 야구감독으로 변신했다. 청보 핀토스 사령탑을 맡아 1986년 첫 시즌을 시작했다. 하지만 성적 부진으로 강대정 코치에게 지휘권을 넘겼다. 그 해 6월 다시 감독으로 복귀에 성공했으나 결국 8월

중도 해임됐다.

1987년 롯데디자인즈 수석코치를 맡은 뒤 1990년 미국 프로야구(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마이너리그 코치로 활동했다.

허 총재는 1991년 다시 마이크를 잡으면서 현재까지 야구 해설위원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그동안 야구 해설위원으로서 많은 어록을 남겼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등 한국 야구 대표팀이 승리할 것 같으면 “됐어요, 됐어요”라는 말 대신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 억양으로 “대쓰요, 대쓰요”라고 말해 한때 유행어가 됐다.

KBO도 관여해 2005년 규칙위원장, 2007년 기술위원회 부위원장, 2009년 야구발전위원회 위원장, 2018년 총재 고문을 맡아 행정 경험도 쌓았다.

허 총재는 야구인 최초로 KBO 수장이

됐다. KBO는 25일 “서면 표결을 통해 구단주 총회 만장일치로 허규연 위원을 제 24대 총재로 선출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열린 제4차 KBO 이사회에서 재직 이사 3/4 이상의 추천 동의를 받으면서 총재 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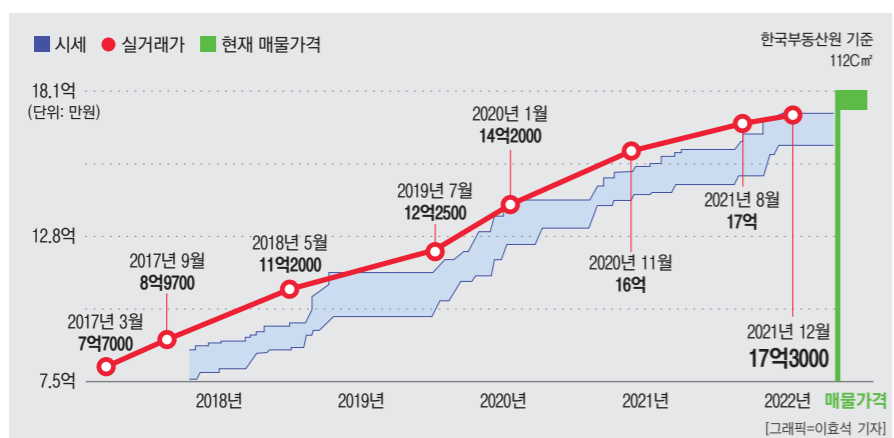
25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허규연 총재의 취임식 및 취임 기자회견이 29일 오후 3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렸다. 그는 취임사에서 “팬을 우선으로 하는 팬 퍼스트(FIRST) 주의, 야구 센터 건립 등 인프라 개선 및 규제 완화,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류전 개최 등 3대 핵심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구장 안팎에서 경기장 시설 등 야구에 관한 화두를 끊임없이 던지며 야구 사랑을 드러내온 허 총재가 앞으로 KBO 지휘자로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 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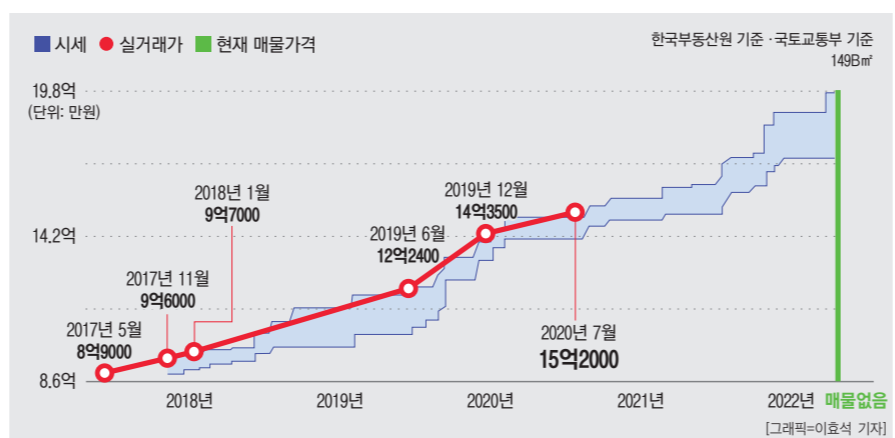


허규연
현) KBO 총재, 야구 해설위원
~ 1976년 한일은행 야구단
1982년 ~ 1990년 문화방송 야구해설위원
1985년 ~ 1986년 청보 핀토스 감독
1987년 ~ 1987년 롯데 자이언츠 수석코치
1990년 ~ 1991년 토론토 블루제이스 마이너리그 코치
1991년 ~ MBC 야구해설위원
2004년 ~ 2012년 대한야구협회 이사
2005년 ~ MBC스포츠플러스 야구해설위원
2005년 ~ 한국야구위원회 규칙위원회 위원장
2007년 ~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회 부위원장
2009년 6월 ~ 2017년 12월 한국야구위원회 야구발전위원장
2018년 2월 ~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고문
2022년 3월 ~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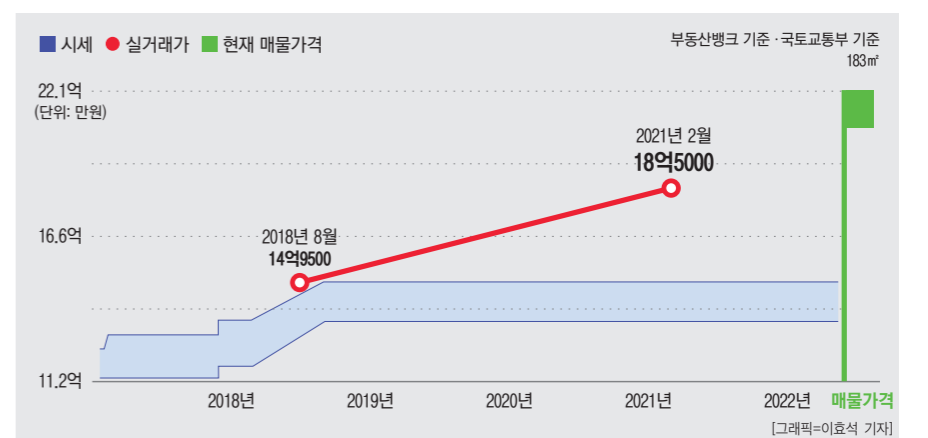
래미안공덕5차



공덕푸르지오펀트라우스



신구강변연가



김정호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김정은연세대 특임교수는 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수료했다. 이후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 송실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1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임연구위원, 연구위원-규제연구센터 실장, 한국주택학회 학술위원장 등을 지냈다. 2008년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위원, 포퓰리즘법감시단 공동대표를

맡았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갈등하는 본능’ ‘한국법의 경제학’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비즈니스 마인드셋’ 등이 있다. 김 특임교수는 유아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해 11월 유아 교육을 주제로 한 ‘맘이 선택해 하라’는 책을 펴냈다.



최창학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은 대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및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구시청에서 시정연구단 전임연구원, 정보화담당관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 전자정부국장을 맡았다. 2018년 7월 LX 사장으로 취임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이론적 전문지식을 갖춘 정보 전문가라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본인의 새벽 운동을 이유로 운전원을 관사에 상습적으로 대기시키고 정부

최창학

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년 4월 해임됐다. 최 전 사장은 해임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진 뒤 업무에 복귀했다. 올해 1월 열린 북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박수홍

박수홍은 1991년 KBS 대학개그콘테스트를 통해 공채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1990년대 초반, 희극계를 주름잡았던 코메디 팀 ‘감자골’ 4인방의 멤버로 김용만, 김국진, 김수용과 함께 활동했다. 이후 ‘감자골’ 후사를 당한 뒤 1993년 1월,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해체 후 군인 생활을 하며 1995년 제대하고 이듬해 SBS ‘기쁜 우리 토요일’ MC가 되며 방송 활동에서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편안한 이미지와 부드러운 진행 능력으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기쁜 우리 토요일’ ‘야심만만’ 등 다양한 인기 버라이어티에서 활약하며 유재석, 강호동 등 톱 MC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후 박수홍은 ‘외리꾼’ ‘소문난 며느리’ ‘속풀이쇼 동치미’ ‘애정통일 남남북녀’ ‘팻닥터스’ ‘미운 우리 새끼’ ‘하속집 딸발’ 등에 출연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31일 개통... 교통량 분산 효과 기대

대구광역시 달서·동구

국토교통부는 내일 12시부터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전면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달서구와 동구를 잇는 총 길이 33km의 왕복 4차로로 2014년에 착공해 8년 만에 개통했다.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기본계획(2021년~2030년)에서 대구시 순환권인 서북부 단원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5710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대구시내의 교통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진출입시설로는 분기점 2개소(칠곡, 상매), 나들목 8개소(달서, 다사, 북다사, 지천, 동명동호, 서변, 파곡재, 둔산)가 설치돼 다른 고속도로의 접근성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구 도심지역에 집중되던 경부 등 5개의 방사형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교통 혼잡해소와 연간 약 1027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



국토교통부.

박미나 기자

으로 예측되며 인접 지역인 영천, 경산 및 칠곡 등을 하나로 연결해 대구-경북 광역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과 편의시설을 적용했다.

실시간 전방 교통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통합 차로제어를 통한 효율적 교통관리(18개소) 기법을 도입했으며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해 터널 진출입 구간에 도로열

선(8개소)을 설치했다. 운전자의 휴식을 위한 편리한 졸음쉼터 4개소와 차량장착 등을 대비한 비상주차대도 750m 간격으로 곳곳에 설치했다.

천연기념물 1호인 죽백나무 숲, 달성습지 등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도로도 도심지 구간에는 소음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저소음포장을 적용했다.

국토부 이상삼 도로국장은 “이번 개통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500만 지역민 교류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올해에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외에도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9.7km),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중 남양주(조안)-양평 구간(12.7km)도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고양시, 1만6530㎡ 규모 세 번째 반려동물공원 조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기 고양시 대화동에 반려동물 공원이 생긴다. 일산동구 호수공원과 덕양구 덕수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에 이어 세 번째로 조성되는 반려동물 공간이다.

시는 25일 일산서구 대화동 1993번지에서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지역 예술팀 ‘피크타입’의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및 축사에 이어 시 삼 포포먼스가 이루어졌다.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의 면적은 1만 6530㎡(약 5000평) 규모로 울레 안에 놀이터, 관리동,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9억여원으로 시는 국회, 경기도의회의 협조 지원을 통해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정교부금 9억원을 확보했다.

반려동물공원은 지역주민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성된다. 공원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고, 펜스, 폐쇄회로(CC)TV 설치와 관리인 상주를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노



고양시 대화동 반려동물공원 착공식.

고양시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관리동에는 화장실, 회의실,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비반려인도 휴식과 교육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자연과 인공시설물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조성할 예정이다”며 “단순한 놀이터 공간을 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생 공간으로 조성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돕는 촉매로 삼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